

## 지역 이모저모

## 인천시

## 상수도 관리기준 제도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적 매뉴얼'을 수립했다.

상수도 관세적 매뉴얼은 상수도 관로 내부에 축적되는 침전물과 이물질 제거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표준 지침으로, 관세적 공법 선정 기준부터 세척 협의,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 절차를 담고 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 해남군

## 공공기관 청렴도 '최고등급'

해남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200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행 이후 해남군 최초의 성과이다.

해남군은 공직자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모든 군정업무의 추진시 청렴 원칙을 우선 적용해 군민들의 청렴 체감도를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특히 민원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청렴 체감도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면서 청렴 긍정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전남도

## 저탄소농산물 규모 전국 1위

전남도는 저탄소농산물 인증면적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전남도의 저탄소농산물 인증 실적은 284건에 5664ha로 전국 인증면적 1만 8935ha의 33%를 차지했다.

시도별 저탄소 인증 규모를 살펴보면 전남 5664ha, 전북 4560ha, 경북 3265ha, 충북 1996ha 등의 순이었다. 전남도는 연간 약 1만5397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민단체

## “김해공항 시설 확충해야”

부산시민단체가 포화상태인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확장 등 시설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동남권 관문공항인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이용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지만 공항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김해공항은 국제선 여객 증가에 따라 제2출국장을 부분 운영하는 등 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매년 늘어나는 승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서울시, 겨울방학 프로그램 지원  
AI진로 코치, 진로방향 점검·설계  
대학캠퍼서 실습 체험 기회도

서울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서울런'이 학년이 바뀌는 겨울방학을 맞아 다채로운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학습 공백 없이 새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서울런 3.0' 비전에 발맞춰 이번 겨울방학 동안 ▲AI 진로·진학 코치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 ▲교과 기초 학습 등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복잡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 서비스를 겨울방학 동안 시범 운영한다.

'서울런 진로·진학 AI 코치'는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과 대입 제도 개편 등으로 진로·진학 선택의 복잡성이 커지는 환경을 반영해 AI 기반 분석을 통해 적성과 진로 방향을 점검하고, 진학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서울런 여름방학 영어동행캠프 프로그램의 하나로 서울센터에서 원어민 강사와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돕는다.

참여 학생들은 AI 기반 진로·학습 심리검사 결과와 학생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공·진로 탐색과 진학 준비에 필요한 참고 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받고, AI 모의 면접 기능을 활용해 자기 점검과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서울런 회원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오프라인 참여 없이 서울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AI 코칭으로 설계한 진로나 관심 직

업을 대학 캠퍼스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서울런 대학 연계 진로캠퍼스'도 운영한다. 로봇·반도체 등 첨단 공학 분야부터 K-뷰티·K-POP 등 예체능 분야를 아우르는 전공 심화 체험 과정을 개설해 청소년들이 대학 실습실에서 교수진의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적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학 특성화 대학인 동양미래대학교에서는 2026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로봇엔지니어 ▲반도체엔지니어 ▲소방전문가 ▲생명공학연구원 등 4개

## 남양주 덕소역에 KTX-이음 정차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 거점으로

남양주시가 이달 30일부터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중앙선 KTX-이음 운행이 확대되는 가운데, 덕소역이 신규 정차역에 포함되면서 시가 이를 시민과 함께 뜻깊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덕소역에는 내년 1월 3일부터 주말 일부 KTX-이음 열차가 정차하게 된다.

중앙선 KTX-이음은 최고 시속 260km의 고속열차로, 수도권과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부산·울산권을 약 3시간대로 연결하는 국가 철도 정책의 핵심 노선이다. 그간 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방문해 KTX-이음의 덕소역 정

차를 지속 건의해왔다.

남양주시는 이번 정차로 시민들의 전국 고속생활권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시는 이번 정차가 일부 주말 열차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평일을 포함한 KTX-이음 정차 횟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덕소역은 현재 주말에 강릉선 KTX가 정차하고 있으며, 이번 중앙선 KTX-이음 정차를 계기로 덕소역이 수도권 동북부를 대표하는 고속철도 광역교통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 부산시, 올해 시정 성과 '베스트 12' 선정

시민, 공무원 등 2263명 설문조사

부산시는 올해 시정 핵심 성과를 글로벌허브와 시민행복 2개 분야로 나눠 베스트 12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진행한 '2025년 시민공감 시정베스트'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번 성과를 선정했다. 설문에는 시민, 공무원, 언론인 등 총 2263명이 참여했다.

글로벌허브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가 가장 주목할 성과로 꼽혔다. 부산은 미식·야간·축제·의료관광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며 트립어드바이저에서 도쿄·상하이보다 높은 여행만족도 상위 2위에 오르는 등 글로벌 관광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다졌다.

상용근로자 1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좋은 일자리 100만 시대를 연 점도 성과로 선정됐다. 시는 지역특화 산업·신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인재를 키워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단체 대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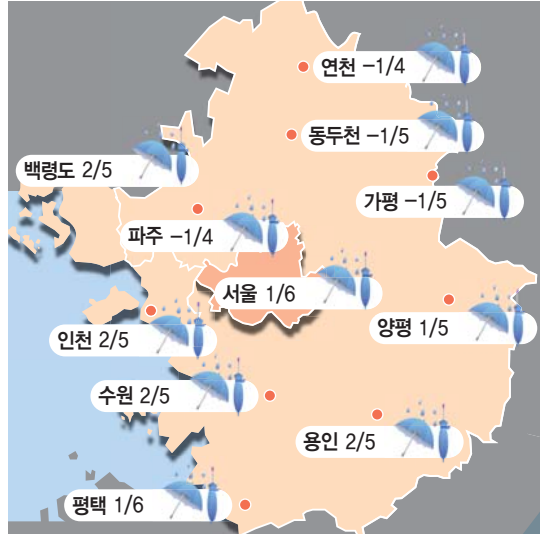
시민행복 분야에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대표 성과로 뽑혔다. 대한민국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은 바다·강·산으로 이어지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부산콘서트홀 개관도 문화 예술도시 위상을 높인 성과로 평가받았다.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 공연을 유치하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4 | 해질 / 17:1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경북 사립유치원 3세 유아에 무상교육비

내년부터 1인당 월 5만5000원 지원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정책 확대에 앞서 내년 3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올해 5세, 내년 4~5세, 2027년 3~5세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의 무상교육·보육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국가 정책 확대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연령 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3세 유아를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선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3세 유아에게 1인당 월 5만5000원의 무상교육비가 지원된다. 교육부 무상교육비 지원 단가의 50% 수준으로 향후 교육부의 단계적 확대 정책과 연계해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무상교육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 메트로 한줄뉴스



▲“日정부, 내년 역대 최대 예산 최종 조율…1157조 원 규모” /사진 뉴시스

▲中, 車반도체 공급 부족에 “넥스페리아 문제 해결” 촉구

▲트럼프, 거액 기부자에 사면·관직·접견권 보장 등 특혜…“유례없는 거래주의”

▲中 11월 희토류 수출…전월 대비 휴전한 美 11% ↓·갈등 격화 日 35% ↑

▲미·베네수엘라 갈등에…금·은 사상 최고가 찍었다

▲러 외무 차관 “러, EU·나토 공격 의지 없어…서방 적대행위로 무력 충돌 우려”